

‘장애학생 가족의 건강한 삶 찾기’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여수특수교육지원센터, 부모·형제·자매대상 운영

“심리·정서적 안정 찾아 지친 마음 회복 도움 됐으면”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에서 2020.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 ‘우리가족 행복찾기’를 운영하였다.

이번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학부모의 감정코칭과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부모 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의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알아 차리고 수용하기’라는 주제로 구성된 부모집단 프로그램은 6회기로 진행되

었으며, 긍정적 감정의 나 표현하기, 감정 단어를 보고 구체적인 사건 떠올리기, 친밀 마음 챙김 명상, 심상법 등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의 아동집단 프로그램은 4회기로 진행되었고, 장점/감정 표현해주기, 얼굴/감정 표현하기, 행복한 동물 가족 표현하기 등의 활동으로 서로 간의 긍정적인 상호 교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에는 ‘내 자녀의 성적 발달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대 교육장은 “이번 심리 상담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애학생 가족이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광주 동구,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

250세대 에어써클레이터·마스크·영양제 등 전달 예정

광주 동구가 폭염이 본격화함에 따라 무더위로 고통 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에 따라 장애아동가정·사례관리대상자·결식우려자 등 폭염 취약계층 250세대에 △에어써클레이터 △비말차단마스크 △종합영양제 △전자모기향으로 구성된 ‘건강가득 쿨

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천만 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 무더위쉼터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취약계층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가구별 특성에 맞는 물품을 선점하고 대상가구의 중복지원을 최소화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00대 무상 기증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주성)는 지난 20일 광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하이패스 단말기 제조사인 ㈜엠피온과 함께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00대를 무상 기증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총연합회를 통해 신청한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00명을 선정하였다.

도공 광주전남본부는 2015년부터 전남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7,700대를 무상으로 보급해왔지만, 광주광역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감면단말기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선옥 기자

김경숙 대표 “어르신께 도움 됐으면”

광양시는 최근부터 ‘숙이네 반찬’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김재경)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세대에 도시락을 후원한다.

광양읍 소재 ‘숙이네 반찬’(대표 김경숙)은 반찬 5가지와 국을 손수 만들어 대상가구 어르신들에게 주 5일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게 된다.

숙이네 반찬 김경숙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



록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도시락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도시락을 후원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민간후원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 해주신 숙이네 반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민간후원자원 발굴·연계사업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